

경남대,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대학'으로 우뚝

경남 통일교육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 경남 통일교육센터 개소 2 경남대 3 '청년 진로-취업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경남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래 '지역과 함께하며, 지역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올해 개교 76주년을 맞아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 대학'을 비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대학 혁신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지역 명문사학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지역통일 교육 선도 '경남 통일교육센터'

경남대는 최근 통일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통일 교육을 책임지는 '경남 통일교육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통일안보 특성화대학으로서 교육부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 안보 전문 인재 양성사업',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수행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 학술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국제포럼(KGF)'을 주관하며 남북

간 평화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가 하면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서 북한·통일학 분야에 특화된 해외 신진연구자를 육성해왔다. 경남대는 2020년 통일부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에서 '영남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 내 통일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그 결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진행한 '202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성과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초대 센터장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과 50명의 제23기 통일교육위원은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며 지역과 함께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계획이다.

지역 청년 종합취업 서비스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경남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사회 고용 문제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학생부터 졸업생, 나아가 지역 청년에게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진로 탐색·취업 역량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특화 윈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진로 탐색 및 전문 상담 지원, 취업 컨설팅·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지역 청년 고용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경남대는 또 독창적인 산학친화형 교육 과정인 '일머리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과 혁신기술을 활용한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세계 발전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미래를 향한 도약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



나를 가꾸는 대학

세상을 바꾸는 대학

경남대학교 [15만 동문]이 함께합니다

140억원 3년간
3주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475억원 5년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USG공유대학) 선정

240억원 6년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3.0) 선정

약 **21억원** 6년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경남 지역 대학연구소 중 유일!



간호학과 20 성지민

☎ 입학안내 및 문의 055.249.2000

- 경남 통일교육센터 주관기관 선정(2022)
-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2021)
-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선정(2020)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선정(2020)
- 경상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4년 연속 선정(2021)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획득(2021)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2021)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2020)